

“자립형 경제 도시로 행복한 미래 건설”

2023 세에 설계

이병노 담양군수

“다 함께 행복한 자립형 경제도시 조성을 위해 농업과 경제, 문화와 관광, 복지 등 각 분야에서 사람과 제도, 환경을 새롭게 탈바꿈시켜나가겠습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새해를 맞아 4일 각오를 밝혔다.

이 군수는 자립형 경제도시 조성을 위해 ▲부지농민 육성으로 잘사는 부자 농촌 조성 ▲담양형 향촌 복지를 통한 효도 행정 실현 ▲정년이 돌아오는 담양, 젊음이 넘치는 담양 건설 ▲사회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정주 여건 개선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행복한 ‘남도 문화 관광도시 담양’ 조성 ▲군민과 소통을 통한 포용적 공감 행정 구현 등 6가지 핵심 정책을 제시했다.

이 군수는 부자 농촌 조성을 위해 농업예산을 전년 대비 4.4% 상향 편성하고 쌀값 하락 극복을 위해 다른 작물 및 담양 명품 딸기 재배 면적 확대할 계획이다. 또, 최첨단 스마트팜을 적용한 친환경 축산단지를 조성하고, 농업사관학교 운영으로 청년 농업 전문가를 양성하는 한편, 농기계 임대사업소 서부지소를

‘남도문화 관광도시’ 조성 포용적 공감행정 소통 구현

신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어르신들이 고향에서 여생을 편히 보낼 수 있도록 맞춤형 의료와 요양복지를 제공하고, ‘주치의 담당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중년들의 소통 공간인 ‘중년 쉼터’를 연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장애인 장학금 신설과 아동 돌봄서비스도 강화 등 따뜻한 복지도 실현할 계획이다.

이 군수는 지역의 성장동력이자 미래의 주역이 될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제2 일반산업단지에 정부 주도 핵심 지원 사업을 반영시켜 청년창업과 일자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교통 여건 강화를 위해 송정역에서부터 담양읍까지 광역교통망 구축 확대와 중앙로 보행환경 개선, 도시가스 공급 등 사회안전망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제적 자립에 보탬이 되도록 마을 소유의 공공시설 및 부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저지대 수해 대비를 위한 시설 정비와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담수면적 확대와 대체 취수원 준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군민과의 대화 ▲소규모 민생현장 간담회 수시 개최 ▲군민 신문고 및 군민 제안제도 활성화 ▲군정자문단 운영 등 다

양한 소통 채널 운영 등 군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열린 행정, 문턱 없는 행정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병노 군수는 “새해에는 민선 8기 원년의 해로 새로운 담양을 모두가 체감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와 함께 역량을 다하겠다”며 “군민과 출향인들의 적극적인 응원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담양=정일남 기자

태원여객·유진운수 경영개선안 목표시장, 수용 불가 입장 표명

목포시가 태원여객·유진운수의 경영개선안(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4일 입장문을 통해 태원여객·유진운수의 경영개선(안)과 시내버스 미운행 상황에 대한 방침을 밝혔다. 태원여객·유진운수는 지난해 11월 15일 서명한 합의서에 따라 지난해 12월 30일 경영개선(안)을 시에 제출했다.

태원여객·유진운수의 경영개선(안)은 노선 개편 및 노선폐지, 운행차종의 적정화, 대표이사 인건비 반납, 재무관리팀 파견요구 등이다.

박 시장은 경영개선(안)에 대해 “목포시 요구와 시민 여론, 목포시의회의 입장에 미흡해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10일까지 ▲전문경영인제 도입 ▲노선반납·감차 등 용역 결과 전면 수용 등을 요구했다. 또 시가 재무관리단을 파견해 수입과 지출 등 재무분야의 회계를 총괄 관리해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 2022년 12월 12일 지속되고 있는 시내버스 미운행과 관련해서는 ▲대표이사의 대시민 입장문 등 발표 ▲담보제공 등 가스 연료비 채무 미납액 24억원 자체 해결을 통한 조기 정상 운영을 촉구했다.

박 시장은 “시의 이와 같은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해 사업면허 취소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목포=박승경 기자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제2지구 조성 ‘시동’

주민설명회 개최 의견 청취

해남군이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제2지구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최근 마산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제2지구 조성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제2지구에 조성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해남군은 식품특화단지 제2지구가 100% 분양됨에 따라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기업 유치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제2지구 조성을 위한 관계 기관 협의 및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마산면 주민들을 비롯한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제2지구 조성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내용 설명이 이뤄졌다. 이날 참석한 주민들은 기존 관습로 유지·확장 및 진입도로 조성에 관한 의견, 공사 추진 중 소음·진동에 대한 피해방지 대책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해남=박병태 기자

함평군-㈜씨엔에스컴퍼니 빛그린산단 제조시설 협약

함평군과 전남도, ㈜씨엔에스컴퍼니(대표 권만성 박세은)가 43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함평군은 “광학보안경 및 AI 스마트그릴 생산업체인 ㈜씨엔에스컴퍼니가 최근 빛그린산단 입주를 확정하고 43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맺었다”고 4일 밝혔다.

군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상의 함평군수를 비롯한 권만성 박세은 ㈜씨엔에스컴퍼니

대표 등이 참석했다.

투자협약에 따라 ㈜씨엔에스컴퍼니는 월야면에 위치한 빛그린국가산단에 2,795㎡ 규모의 제조시설을 신축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씨엔에스컴퍼니는 제조시설 확대를 통해 연간 60억원 규모의 생산효과는 물론 지역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이번 투자협약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확대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씨엔에스컴퍼니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함평=윤예중 기자



최근 함평군청 군수실에서 열린 투자협약식. 왼쪽부터 박세은 ㈜씨엔에스컴퍼니 대표, 이상의 함평군수, 권만성 ㈜씨엔에스컴퍼니 대표. /함평군 제공

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 올해 사업비 1,700억 확보

완도군은 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광주~강진 구간) 올해 사업비 1,780억 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사업은 총 연장 88.61 km, 4차선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약 3조 3,837억 원이 소요되는 대형 국책 사업이다.

지난 2014년 타당성 재조사 후 광주~백진동~강진 성전 1단계, 강진 성전~해남 남창을 2단계로 나누는 변경안이 만들어져 1단계 구간이 지난 2017년 8월에 착공했으며 현재 공정률은 68%이다. 1단계 구간은 2026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2단계 구간은 국가 계획인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 중점 추진 노선으로 반영됐으며, 정부 국경 과제에 반영돼 현재 사전 타당성 조사 중이다.

전 구간이 개통되면 접근성 획기적으로 개선돼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 전국 단일 생활권 형성 등으로 전남 중남부 지역, 광주권과의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완도=최규욱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광주은행, 무안 승달장학금 1천만원 전달

무안군은 최근 광주은행에서 무안군 우수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의 상생을 위해 승달장학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고 4일 밝혔다.

광주은행은 광주은행장학회를 설립해 41년 동안 4,000여명의 지역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우수한 인재육성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기탁식에서 염규승 부은행장은 “우수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을 기탁했다”며 “광주은행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산 군수는 “지역 학생들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기탁해준 광주은행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무안=박주현 기자



영광, 온정나눔 성금·물품 기부 행렬

영광군에 따뜻한 이웃 사랑의 마음을 담은 기부행렬이 이어지면서 지역 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주)거원(대표 임운채)은 350만원 상당의 김치 310kg, 케일 50개를 전달했고, 백수읍부녀회(회장 신관옥)는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한줄기회(회장 박균용)는 최근 영광군을 방문해 현금 300만원을 전달

했다. 백수읍에 있는 그린영광굴비(대표 김삼숙)는 3,000만원 상당의 볶음고추장 100상자를 전달했다.

지난 2005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때래 모임인 공의회(회장 최민)는 ‘희망2023나눔캠페인’을 맞아 400만원 상당의 쌀 1,670kg을 기탁했다. /영광=곽용순 기자



(재)장성장학회, 기관·단체 기탁 잇따라

(재)장성장학회(이사장 김한중 장성군수)가 잇따른 기부 소식을 전했다.

한국수자원공사 영산강·섬진강유역본부 전남북부권지사 임직원 70여 명이 올해 1년간 모금한 장학기탁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장성지역 내 10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장성군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지

역인재 양성을 위해 100만 원을 기부했다. 장성군여성단체협의회는 지금까지 총 500만 원의 장학금을 재단에 기탁했다.

한편, (재)장성장학회는 최근 제2회 (재)장성장학회 이사회를 열고 장학금 지급, 교육경비 지원 등을 위한 2023년도 예산 33억 8,200만 원을 심의·의결했다. /장성=전일용 기자